



컬렉터들은 왜 부산으로 갔을까 '아트 도시' 부산 이모저모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예술의 꽃이 만발하고 있다. 와이어 공장을 개조한 문화공간 F1963이 문을 열어 변화의 시동을 걸더니, 올가을에는 새로 개관한 부산현대미술관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리며 새로운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트 도시로 변신한 부산을 산책해 보자.

글 이소영 프리랜서 기자



1

미술애호가들의 축제 2018 아트 부산

부산 최대의 아트 페어인 아트 부산이 지난 4월 19~22일 벅스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6만여 명이 찾아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아시아 최대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의 올 관람객이 8만 명 정도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15개국 161개 갤러리가 참가했고, 역대의 작품들이 부산 빅 컬렉터의 품에 안겼다. 국제갤러리의 줄리안 오피·우고 룬노네, 가나아트에 이우환, 갤러리현대의 백남준 등의 작품 판매가 화제를 모았다.

특별전도 6개나 열렸는데, 그중에서도 벅스코 3B홀 전체를 매운 일본 미술가 신지 오마키의 7m 높이 미디어 설치작업이 감탄을 자아냈다. 벅스코 3B홀은 그 유명한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터빈홀에 뒤지지 않은 숭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벅스코 광장에 전시된 박은선 작가의 대리석 조각전도 인상적이었다. 박은선은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에 거주하며 대리석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국제적 미술가다.

'소통하는 그림연구소'의 이소영 대표가 특별 강연을 했는데, '다문화, 페미니즘, 아웃사이더'라는 세 가지 주제로 아트 부산을 설명해 흥미로웠다. 이 대표는 "인도·베트남 작가의 활동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아트 부산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워 여성 미술가로는 올해 영국 갤러리 화이트 큐브에서 전시한 김민정 작가를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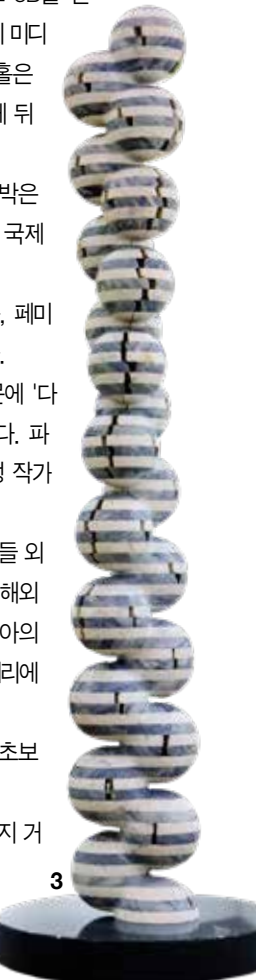
1 일본 미술가 신지 오마키의 7m 높이 설치 작품 2 아트 부산 전시장 전경 3 조각가 박은선의 대리석 작품

이번 아트 부산에서는 영국의 트레이시 에민, 일본의 구사마 야오이, 한국의 천경자, 정강자, 이성자 등 거장들 외에도 젊은 작가 김미영, 전현선, 유진영, 박민하 등의 작품이 주목을 받았다. '아웃사이더' 주제에서는 작년 해외 경매에서 인기를 끌었던 장 미셸 바스키아를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거리의 미술이 재조명됨과 함께 바스키아의 작품들이 재평가됐고, 아트 부산에서도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프랑스의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에 관심을 두는 미술 수집가들이 많았다.

아트 부산에 몇 년간 참여해온 일본 도미오 고야마 갤러리의 도미오 고야마 대표는 고가 작품뿐만 아니라 초보 컬렉터를 위한 적당한 가격의 작품이 있어 의미 깊다고 했다.

"우리 갤러리에서는 신에 작가 나가이 도모코의 작품 여러 점이 판매되고, 페어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들까지 거래됐다"고 전했다.

아트 부산 2018은 예술 영화 상영, 아트 버스 운영 등 페어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움을 더해 호평을 받았다. (<http://artbusankorea.com/2018>)



2

부산의 미술 명소를 거닐다

부산 여행은 바다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정의 마무리를 미술관·갤러리 산책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애호가도 아니더라도 미술 공간은 언제나 방문할 가치가 있다. 미술관 인근은 미식과 쇼핑을 즐기기도 훌륭하기 때문이다.



2

- 1 해운대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가나아트 부산 전시장
- 2 달맞이 고개에 위치한 조현화랑
- 3 소울 아트 스페이스에서는 김덕용 작가의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3

해운대 보이는 갤러리에서의 '힐링'

바다가 보이는 갤러리라면 그림을 감상하며 풍경도 만끽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해운대 주변에는 4개의 갤러리가 있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있는 조현화랑은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풍광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전시로 명성이 높다. 본관과 신관 두 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빛나무, 수국, 나팔꽃, 로즈메리 같은 식물들이 건축물을 에워싸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

5월에는 프랑스 신구상을 대표하는 작가인 필립 코네의 '과밀도, 현실의 포화'가 열렸다. 밀랍과 안료를 섞어 그림을 그린 후 플라스틱을 압하고, 그 위를 뜨겁게 다림질해 구조를 해체하는 필립 코네의 작품이 독특하다.

6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김중학 작가의 신작 '대혼돈'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는 개인전이 열린다. 80세의 노장 작가는 이전 작업에서 보여줬던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에서 벗어나 색과 형상이 어우러진 새로운 추상 미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www.johyungallery.com)

역시 해운대에 있는 시원한 바다 전망의 가나아트 부산도 찾아볼 만한 명소다. 지난 4월 회화에 입체감을 불어넣은 젊은 미술가들의 그룹전 '회화의 질감' 전시가 열렸다. 직조 방식을 적용해 새로운 질감의 회화를 만드는 현대미술작가 권혁, 차승언, 최소영의 작품이 재미있었다. 붓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회화와 달리 세 작가는 실과 바늘을 이용해 짜고 꿰매는 행위를 통해 캔버스를 완성한다. 가나아트 부산은 미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제17기 가나문화포럼을 6월 12일까지 진행한다. (www.ganaart.com)

부산 영화의전당 앞에는 미술가 짐 다인의 대형 피노키오 조각작품이 있다. 해운대를 방문할 때마다 유명 미술가의 조형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피노키오 조각 바로 건너편에는 아트소향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아트소향에서는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두 청년 작가의 '어른을 위한 동화' 전시가 열린다. 제주에 거주하는 강준석 작가는 제주의 환상과 일상을 표현한다. 베이징중앙미술학원에서 수학한 감성빈 작가는 사람의 감정을 담은 조각에서 회화로 영역을 넓힌다. 특히 '슬픔'에 주목하는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몸으로 감성을 표현하는 한편 관람객의 마음을 위로한다. 아트소향은 4개의 전시 공간이 결합한 전시장이 특징이다. 천장 높이가 6.5m에 달하는 독특한 공간도 갖췄다. (www.artsohyang.com)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는 5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김덕용 작가의 '결-사이 間' 전시회를 연다. 김덕용 작가는 직접 수집하고 조각한 나무에 한국적 풍경을 담는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작가의 신작은 원형의 결을 파내어 밤하늘의 별무리를 형상화한 작업이다. 어린 시절 별을 보며 꿈을 키웠다는 작가가 관람객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www.soulartspace.com)



4

- 4 6월 개관하는 부산현대미술관
- 5, 6 부산시립미술관은 본관뿐 아니라 별관 이우환 공간이 아름다운 명소다.



5



6

- 7 와이어로프 공장을 개조한 F1963에서는 줄리언 오퍼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 8 아난티 코브의 아름다운 서점 이터널 저니



7



8

'20주년' 부산시립미술관 VS '새내기' 부산현대미술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미술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김선희 관장의 부임 이후 더욱 활기찬 전시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의 매력은 별관 '이우환 공간'에서부터 입증된다. 일본 나오시마에 이은 세계 두 번째의 이우환 미술관으로, 작가가 직접 건축 디자인에 참여했다. 전면 유리화 콘크리트가 둘러싼 직

육면체 건물 1층에는 '관계항-좁은 문' '물(物)과 언어' 등이, 2층에는 점과 선을 이용한 대표적 회화인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바람과 함께' 등의 작품이 어우러져 있다. 이우환 공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라보는 야외 조각작품들이 운치를 더한다.

본관에서는 개관 20주년 기념 전시가 7월 29일까지 열리는데, 1부 '모던, 혼성: 1928-1938'과 2부 '피란 수도 부산-절망 속에 핀 꽃'으로 구성된다. 1부는 부산 근대 미술의 태동기인 일제 강점기의 부산 미술을 살펴보는 형식이다. 2부는 한국 전쟁 당시 부산에서 이루어진 문화 르네상스를 재조명한다. 부산으로 피란을 와서 그림을 그렸던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박수근, 천경자, 백영수 등과 부산 서양 미술 작가 김종식, 송혜수, 양달석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http://art.busan.go.kr)

오는 6월 15일 개관하는 부산현대미술관은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터를 잡았다. 을숙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만큼 미술관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자연과 예술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개관전으로는 프랑스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의 '수직 정원'을 선보인다. 패트릭 블랑은 정원은 땅 위에 세워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흙이 없는 수직 콘크리트 벽 위에 에어 플랜트(Air Plants)를 이용한 수직 정원을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이번 전시는 정원의 정의를 넘어서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www.busan.go.kr/moca)

부산에 가면 꼭 들러봐야 할 명소 중 하나가 F1963이다. 1963년 설립된 고려제강의 와이어로프 생산 공장이 2016년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것이다. F1963은 정원, 전시장 석천홀, 레스토랑 '복순도가', 카페 '테라로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6월 24일까지 전시장에서는 영국 팝 아티스트 줄리언 오퍼를 만날 수 있다. 작가는 F1963을 직접 방문한 영감을 작품에 반영했다. 전시장 중심에는 관람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세 마을(Medieval Village)' 조각이 설치돼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게 된다. (www.f1963.org)

마지막으로 흥티아트센터와 아난티 코브의 서점 '이터널 저니(Eternal Journey)'도 놓치기 아까운 곳이다.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흥티아트센터는 설치 미술 중심의 창작 공간이다. 입주 작가 지원으로 인근 공단과 도시 속 작가들이 공생하며 교류하도록 돕는다. 방문객을 위한 소품 제작, 셀프 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 (www.bsca.or.kr/10/03.php)

이터널 저니는 기장 해안에 조성된 휴양 단지 아난티 코브에 들어선 500평(1천855㎡) 규모의 대형 서점이다. 바다, 환경, 작업실 등 50여 가지 주제를 정기적으로 변경해 이와 관련된 책을 비치하기 때문에 서가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진다(www.theananti.com/kr).



3

미리 보는 2018 부산비엔날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산비엔날레가 오는 9월 8일 개막해 11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새로 개관한 부산현대미술관과 옛 한국은행 부산 본부에서 열린다는 점부터가 관심을 모은다. 이번 부산비엔날레에서는 프랑스 평론가 크리스티나 리쿠페로, 독일 큐레이터 외르크 하이저가 진두지휘를 맡아 '분리된 영토'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전시한다. "국가와 지역의 분리는 영토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발생합니다. 남북한 뿐만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분단과 분리를 경험했지요." 리쿠페로 감독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라는 주제를 통해 정치적 분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여다보자고 제안한다. 그녀가 전시 주제를 구상한 것은 남북한 정상회담 이전의 일이라는 하지만, 화해 모드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또 다른 공간인 옛 한국은행 부산 본부는 남포동에 있다. 1963년 완공돼 부산시 문화재자료 제70호로 지정된 건축물로 한국전쟁기에 두 차례의 화재 개혁이 이루어진 역사적 공간이다. 옛 한국은행 부산 본부에서는 '미래: 공상 과학을 통한 투사와 예견' 테마가,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과거, 현재: 냉전과 유동적 격랑의 시대' 테마의 작품이 전시된다. 주요 참여 작가는 임민욱, 브라질의 마우리시오 지아스 & 발터 리드베그, 싱가포르의 밍밍, 독일의 헨리케 나우만 등이다. 임민욱 작가의 영상 작품 '만일의 약속'은 1983년 방영된 KBS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장면을 이용해 우리의 외상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여준다. (www.busanbiennale.org)



2

- 1 미술가 듀오 마우리시오 지아스 & 발터 리드베그의 8채널 비디오와 인형 설치 작품 '차이 이야기들'
- 2 싱가포르 출신의 미술가 밍밍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 작품
- 3 한국계 미국인 천민정의 영상 작품



3

4 부산의 미술가들

푸른 바다를 매일 바라보며 작업하는 미술가의 작품은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부산에는 최소영, 강강훈, 김은주, 오유경 등 젊은 미술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산에서 영감을 받은 그들의 최근작과 전시 일정을 알아본다.

청바지로 작품을 만드는 최소영 작가의 작품을 본 적이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청바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답다. 최 작가의 신작은 '우주여행' 시리즈 중 '지구'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에 우연히 달에 간 우주여행사에 대한 다큐멘타리를 보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방향을 찾게 됐음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 '탑' 시리즈는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신의 존재 여부를 상상하며 만든 작품이다.

올 9월 부산 신세계백화점에서 듀오 전시를 준비 중이다. 가나아트 부산에 이제는 입지 않는 청바지를 기증하면, 최 작가가 작품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작은 선물도 준다.

진주 출신으로 부산에 거주 중인 강강훈 작가의 유화는 사진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사실적이다. 그의 인물화 연작은 얼굴의 미세한 스킨과 땀구멍까지 세밀히 묘사해 사진으로 착각하게 한다. 극사실주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단순히 재현의 차원에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 내면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아트페어에 소개돼 여러 번 완판됐다. 7월 20일부터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주관하는 '빛나는 순간' 그룹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아트소항에서 지난 3월 개인전을 가졌던 김은주와 4월에 전시했던 오유경 작가도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현대미술 가장 주세페 페노네를 사사한 설치 작가 오유경은 7월 1일까지 서울 중랑아트센터에서 '욕망의 귀환'이라는 전시회에 참여 중이다. 몇 해 전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에서 주관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서 은(Silver) 기구 제작으로 유명한 '뫼포카 공방(Puiforcat)'에서 장인들과 함께 금속에 대해 탐구를 하게 됐다고 한다. 그 경험으로 현재는 물질과 비물질 사이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김은주 작가는 오직 연필로만 그리는 강렬한 작품으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탐닉하는 대상은 인체, 파도 그리고 꽃이다. 빛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색과 형태는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봐 온 부산의 바람과 바다다. 국제무대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엇이 필요한데, 김은주의 작품은 한국적이면서 부산 작가 특유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 빛난다. ▼



2

- 1 청바지를 소재로 삼는 미술가 최소영의 작품
- 2 강강훈 작가의 유화
- 3 은으로 만든 미술가 오유경의 작품
- 4 연필로 그려진 김은주 작가의 작품



3



4